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⑩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시퍼런 뺨끼통서 볼일을 봤어요”



전재성 회장은 1974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될 때까지 석달 가까이 수감됐었다.

“그 때는 그 강장일 그 지금 국회의원인 강장일 선배하고 고 다음에 강장일 선배 또 대학원 선배가 있었어요. 황인범이라고. 황인범씨가 있었는데 그 참 그 인물이 아주 수려하고 어 뭐라 그럴까 사회과학이론에 상당히 밝았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몇 차례 데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긴급조치 4호가 발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 한 학생 10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0명 이상이 그 때 입건

이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저는 그 몰랐어요. 관련됐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나중에 그 긴급조치 4호가 터지고 나서 3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감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중에 간 게 됐죠. 나중에 (알았는데) 강장일 선배가 먼저 용산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다시 용산경찰서 철장 안에서 만나게 된다. 2층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전재성은 허약한 체질 때문에 고생했음을 털어 놓는다. 화장실 문제가 너무 힘들

었다고 고백한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독방 생활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답답했다고 한다. 이 때 강장일 선배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전재성은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다.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시퍼런 뺨끼통 이렇게 장독대만한 그런 플라스틱통이 있었어요. 플라스틱통에다가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때 여름에 들어갔던 거 같은데 하여간 그 근데 들어와 가지고 첫날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첫날에 문을 따줘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세수하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세수를 시키더라고요.”

서대문형무소의 감방 생활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했다. 좁은 방에서 6명이 함께 기거하면서 칼집을 찼다고 고생담을 털어 놓는다. 그 방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됐던 곳이었다. 당시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김지하가 2층에 수감됐으며, 김병곤이 1층에 있었다. 그리고 제2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여정남 또한 맞은편 방에 수감돼 있었다. 중병 취급받았다고 전재성은 회상한다.

마룻장을 뜯으면 아래에 통로가 나타나는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 밀정이 그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한다. 전재성이 수감됐을 당시에는 잡범들이 담배를 유임해 판매하는 통로로 이용됐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체를 숨겼다가 점검 때 앉혔다가 다시 마룻바닥 밑에 감추다가 발각됐다는 일화도 구술한다.

“긴급조치 4호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 버렸던 사람들은 일차 석방이 됐어요. 8월 달인가 그래서 그 때에 제가 서대문에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면서 보니까 그 때 박석운이 지금 노동운동하던 박석운이라고 서울법대 출신인데 법대 우리가 같이 불교학살회에서 활동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나오면서 그레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사실 전재성은 당시 민청학련이나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거의 몰랐었다. 집회 때 참가했다는 이유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체포됐을 때 함께 구속된 것이다. 전재성은 1974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 될 때까지 석달 가까이 수감됐었다. 석방되면서 노동운동가 박석운을 만나 반가웠음을 말한다. 이로써 전재성은 서울대 학내논론을 대불련에서 지명도를 높িয়ে 된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㉔ 감은사지3층석탑

민중 속에 꽃핀 원효의 정토신앙



통일신라 전기의 고선사지탑

통일신라의 불교는 왕실의 막강한 후원을 중심으로 유지됐다. 불교는 중생구제를 목적을 두지만, 당시 불교는 통일과정에서 지친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 때 원효 스님과 더불어 해공, 혜숙, 대안 스님들이 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원효의 삶은 승려이기 보단 거사에

현재 고선사 터는 덕동호 수몰로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 독특한 통일신라 전기의 석탑으로 유명한 고선사지탑은 1975년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세워 놓았다.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쌓아 놓은 모습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찰은 탑 신앙이 중심을 이루며,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탑은 통일신라 특유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으로 옮겨지는 초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선사지에서 서당화상비 전편이 발견됐으니,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원효와 대면 할 수 있다. 서당화상비는 하단부와 상단부가 따로따로 발견됐다. 하단부는 1915년 5월 9일에 고선사지터에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일본인에 의해 3편으로 조각난 채로 발견됐다. 상단부는 1968년 9월 초 경주에서 발견됐다.

본래 이것은 일제강점기 고물수집에 취미를 갖고 있던 일본인이 자신의 제

원효는 낮은 곳에서 진정한 정토세계 알려

부석사는 원효가 펼쳤던 서민불교의 증거

더 가까웠다.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그는 요석공주와의 혼인을 통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속세로 돌아가 기신론을 비롯한 화엄사상인 정토신앙을 설파했다. 높은 위치가 아닌 낮은 곳에서 중생의 입장을 바라보고 진정한 정토의 세계에 대해 알렸다.

원효 스님의 행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분황사이다. 스님은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활동을 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때 조성됐으며, 모전탑을 지닌 사찰이다. 모전탑은 본래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되며, 벽돌모양의 돌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분황사는 1탑 3금당을 지닌 사찰이었다.

원효 스님의 입적 후, 스님에 대한 비문이 남아 있는 사찰은 고선사다. <삼국유사> '의해편'의 원효 스님 전기 중에는 사복(俗服)과의 일화가 기록돼 있는데, 이때 고선사가 등장한다. 이로 미루어봐 고선사는 원효 스님이 만년에 잠시 머문 사찰이었던 듯하다.

지공장에 보관했던 것이었는데, 해방 후 공정을 논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재발견돼 보관됐다.

원효의 정토 신앙은 의상 스님이 세운 영주 부석사에도 나타난다. 영주 부석사의 주불전이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대적광전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보신 무량수전이라는 것은 신라의 불교가 서민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 부석사를 세운 의상 스님은 원효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신앙의 흐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의 사람들에 대해 열린

신앙의 흐름이 통일신라를 거대한 불국토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해본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⑬

해우소는 바쁜 마음 쉬고 근심 내려놓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을 되새겨보면 깊은 뜻을 간직한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쓰는 '근심을 푸는 곳' 이 해우소(解憂所)라는 말이 있다. 화장실을 지칭하는 말로, 이는 경봉 스님께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통도사 극락암의 화장실(그때는 변소라고 했다)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 소변을 보는 곳은 휴급소(休息所), 대변을 보는 곳은 해우소라고 했다. 극락산원을 찾은 대중들은 이 표현을 보고는 고개를 가우뚱 했다.

어느 날 경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뜻을 설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일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급한 일은 잊어버리고 바쁘지 않은

것은 바쁘다고 해. 휴급소라 함은 쓸데없이 바쁜 마음 쉬어가라는 뜻이야. 해우소라고 한 것은 쓸데없는 것이 뱃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야. 휴급소에 가서 급한 마음 쉬어가고 해우소에서 걱정을 버리면 그것이 바로 도(道)를 닦는 거야.”

이제 사찰에서는 '해우소' 라는 말을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바쁜 마음을 잠시 쉬고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라는 생활 법문인 것이다.

한편, 가수 조용필 4집 앨범 타이틀곡은 '못찾겠다 꾀꼬리' 이다. 이 노래는 1980년 대 초반 대마초 사건으로 방랑하던 조용필이 경봉 스님을 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뭘하는 농민고?”

“기수입니다.”

“그러면 네가 꾀꼬리구나. 무슨 말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아라.”

이렇게 해서 '못찾겠다 꾀꼬리' 라는 노래가 완성됐다. 노래의 일부를 보면,

“못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 나야야 오늘도 술래 / 못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 나야야 언제나 술래 / 어두워져 가는 골목에 서면 /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꺼야...”

그러기하면 통도사 극락암에서 음력10월 29일 봉행되는 '삼삼조사재(卍三祖師齋)' 도 경봉 스님이 시작한 행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이 행사는 부처님 법을 이은 가섭존자로부터 인도 28조사(祖師)와 중국의 6조사를 더해 33인의 조사(祖師)를 기리는 의식이다. 33인이 되는 것은 인도의 28조사인 탈마대사가 인도로 와서 1조(祖)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도사 극락암은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큰스님 향기가 서려있어 많은 선방스님들이 찾아와 안거기간뿐만 아니라 해제철에도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는 도량이다.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30년을 머물며 전국 각지 선방스님 등을 제정하며 삶의 지혜를 안내해주셨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대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매시 잔금대출, 불자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 2 이사장(前) 제9구 분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족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문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보현사신협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주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중철 010-2543-1037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엔터테인먼트·인터파크·에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 육임 학습서 ◆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45만원
 - 육사육임사주강정본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 3종
-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재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재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임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권본 1권 5만원
 - 육임년신수리법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
-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육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종합) 350만원
 - 육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육사재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사육임상생활강정본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사출산길임길시선택비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 수록 30만원
- 육사육임년신수리법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월역수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권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5만원 이상 13종

◆ 기타 ◆

- 육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분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육사육임강의CD100개 평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주) 협 301-0071-8027-01 /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